Saudades do Brasil

- □□

정보

개요
곡명: Saudades do Brasil, Op. 67 / Op. 67b
작곡가: Darius Milhaud (1892–1974)
장르: 피아노 독주 모음곡 및 관현악 전사판
작곡 시기: 1920–1921년
피아노판 초연: 1920년 11월, Paris Galerie Montaigne의 Concert des Six
관현악판 공연 기록: 1921년 Paris의 Loïe Fuller 공연, V. Golschmann 지휘
초판: 피아노판 Op. 67은 1922년 E. Demets, 관현악판 Op. 67b는 1921년 출판 기록과 1923년 Max Eschig 총보로 전함

IMSLP: Saudades do Brasil, Op. 67 · Op. 67b 관현악판

Wikipedia: Saudades do Brasil

Darius Milhaud의 Saudades do Brasil은 브라질 체류 뒤에 쓴 12개의 춤곡을 피아노 독주 모음곡으로 묶은 작품이며, 작곡가가 이를 관현악으로 전사한 Op. 67b도 남아 있다. 피아노판은 Sorocaba에서 Paysandu까지 열두 곡을 이 순서로 진행하고, 관현악판에는 이 목록 앞에 짧은 Ouverture가 추가된다. 따라서 이 글은
원래의 12곡과 관현악판의 추가 서주를 구분해 다룬다.

출판 정보와 판본

IRCAM과 Durand–Salabert–Eschig 카탈로그는 작품을 1920–1921년의 Op. 67과 Op. 67b로 제시한다. PTNA 자료는 1920년 Copenhagen에서 완성되었다고 적고, UNESP 연구는 Milhaud가 브라질에서 돌아온
뒤 1920년 하반기에 작곡했다고 설명한다. 이 자료들은 작곡의 큰 시기에는 합치하지만 정확한 완료 월일에는 차이가 있다.

피아노 원곡 Op. 67은 1922년 Paris의 E. Demets에서 처음 출판되었고 , IMSLP가 연결한 초판 스캔에는
열두 곡의 악보와 표제가 남아 있다. 관현악 전사판은 Op. 67b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 1921년 출판 기록과 1923년 Max Eschig 총보가 함께 전해진다. 일부 공연 ·음반 카탈로그는 관현악판도 Op. 67로 줄여 쓰므로, 작품번호와 판본을 함께 적어 두 버전을 구별한다. 공개 카탈로그에서는 별도의 관현악 편곡자를
제시하지 않고 Milhaud의 전사판으로 다룬다.

소요 시간

피아노판은 약 20분, 관현악판은 약 22분이다. IRCAM은 각각 19분 50초와 22분으로 안내하고, Alexandre Tharaud의 1995년 Naxos 피아노 녹음은 20분을 조금 넘는다. Darius Milhaud가 지휘한 1957년 관현악

녹음에서도 *Saudades do Brasil*에 해당하는 트랙은 약 22분으로 묶인다. 연주자의 템포와 관현악판의 *Ouverture*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편성

피아노판은 피아노 독주다. 관현악판의 DSE 카탈로그 표기는 2.2.2.2 - 2.2.2.0 - timb, 2perc - cordes이며, 이를 풀면 다음과 같다.

- 목관 :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 금관 : 호른 2, 트럼펫 2, 트롬본 2
- 타악기 : 팀파니, 타악기 2명
- 현악 : 현악 합주

IRCAM도 이와 같은 대관현악 편성을 제시한다. Fremeaux의 음반 해설은 호른을 따로 적지 않고 목관, 트럼펫, 트롬본, 팀파니와 타악기, 현악을 열거한다. DSE와 IRCAM의 수치 표기에는 호른 2가 들어가므로, 호른의 포함 여부는 판본에 따라 달라진다. 특정 타악기의 종류나 무대 밖 배치는 공개 자료가 일관되게 제시하지 않는다.

12개 춤곡의 순서와 표제

PTNA 카탈로그와 여러 악보·음반 자료는 열두 곡을 모두 2/4박자의 춤곡으로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템포 표기를 제시한다. 표제 철자와 악센트는 카탈로그마다 달라질 수 있어, 아래에는 널리 쓰이는 지명 표기를 적었다.

순서	표제	**PTNA**에 실린 **tempo**
1	*Sorocaba*	Modéré
2	*Botafogo*	Doucement
3	*Leme*	A l’aise
4	*Copacabana*	Calme
5	*Ipanema*	Nerveux
6	*Gávea*	Vivement
7	*Corcovado*	Tranquille
8	*Tijuca*	Triste
9	*Sumaré*	Léger
10	*Paineiras*	Souple
11	*Laranjeiras*	Alerte
12	*Paysandu*	Expressif

이 표는 PTNA의 카탈로그 표기를 요약한 것이며, 개별 곡의 조성과 마디 단위 형식을 확정하는 비평판 목록은 아니다. 실제 자료에는 Sorocoba, Botofago, Gavea, Sumare, Paineras, Larenjeiras, Paysandù처럼 악센트와 철자가 다른 입력도 나타난다.

관현악판의 Ouverture

관현악판에는 피아노 원곡의 열두 곡에 앞서 짧은 Ouverture가 붙는다. 이 서주는 원래 피아노판의 열두 표제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현악 프로그램을 13개 단위로 세는 근거가 된다. 1921년 Loïe Fuller 공연을
설명하는 자료도 이 관현악판을 따로 기록하므로 , 피아노판의 12곡과 관현악판의 12곡에 서주를 더한 구성을 구별해야 한다.

리듬과 다성성

Fremeaux 해설과 UNESP 연구는 이 모음곡을 tango brasileiro, maxixe, samba 등 브라질 춤 문화와
연결해 설명한다. 이 용어들은 서로 같은 장르를 뜻하지 않으며, 아르헨티나 tango와 브라질의 tango brasileiro를 구분해야 한다. Musical Geography의 분석은 빠른 2/4박자, 싱코페이션 , 반복 오스티나토 , 서로 다른 조의 결합을 작품 전반의 음악적 특징으로 다룬다.

IRCAM의 작곡가 워크코스는 Le Bœuf sur le toit에 실제 브라질 선율이 다수 인용된 것과 달리, Saudades do Brasil의 주제는 Milhaud가 현지 음악을 들은 방식을 바탕으로 새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열두 곡을 특정 민요를 그대로 옮긴 모음으로 분류하기보다는 , 브라질에서 얻은 리듬 경험과 다성적
작곡어법을 결합한 창작 모음으로 보는 편이 자료에 부합한다. 곡별 조성의 완전한 권위 목록은 자료마다
제시되지 않으며, 자료들은 전곡을 하나의 조성표로 정리하지 않는다.

브라질 체류와 창작 맥락

Milhaud는 Paul Claudel과 함께 1917년 2월부터 1918년 11월까지 브라질에 머물렀다. Fremeaux booklet 은 당시 Rio de Janeiro에서 유행한 행렬과 춤 문화를 설명하고, Milhaud가 1920년 Revue Musicale에 브라질에 관한 글을 썼다고 전한다. 귀환 후 작곡 시기와 작품 제목에 남은 지명은 이 체류 경험과 연결되지만 , 각 곡의 표제가 특정 민요나 한 장면을 직접 기록한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열두 표제는 Rio de Janeiro와 주변 장소의 이름을 사용한다. 다만 Sorocaba처럼 Rio 시내 행정구역으로 보기 어려운 지명도 있어, 자료가 확정하는 범위는 Rio de Janeiro와 주변 장소를 가리키는 표제라는 정도다.
표제는 장소명을 사용해 각 곡의 순서를 구분하며, 음악의 장르와 리듬을 단일 지리 분류로 고정하지 않는다.

초연과 무대화

피아노판의 창작 ·초연 기록은 1920년 11월 Paris Galerie Montaigne에서 열린 Concert des Six와 연결된다 . IRCAM, IMSLP, PTNA는 연주자를 Nininha Velloso Guerra로 적지만, 다른 자료와 기존 목록에는 Maria Virgínia Velloso Guerra라는 이름도 나타난다. 두 표기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지는 이 자료들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관현악판은 1921년 Paris의 Loïe Fuller 공연에서 V. Golschmann 또는 Vladimir Golschmann이 지휘한 것으로 IRCAM과 DSE 카탈로그에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은 관현악판이 무대 공연과 연결되었음을 보여

주지만, 정확한 날짜와 장소, 열두 곡 전체인지 발췌인지, Ouverture가 포함되었는지까지는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1921년 기록은 관현악판의 중요한 공연 시점을 보여 주지만, 완전한 관현악 전곡의 초연일로 특정되지는 않는다.

Rambert Archive는 Frederick Ashton 안무의 *Selection from Saudades do Brésil (1920–1921)*을 1930년 6월 23일 London Lyric Hammersmith에서 초연한 것으로 기록한다. Marie Rambert Dancers가 참여했고 생피아노와 한 명의 남성 무용수를 사용한 선곡 무대였다. 이 공연은 12곡 전곡의 초연이 아니라, 피아노 모음곡이 발레 ·무대용 발췌로 옮겨진 사례다.

녹음과 수용

Darius Milhaud는 1928년 11월과 1930년 1월 Paris에서 피아노로 Sorocaba, Sumaré, Corcovado, Ipanema를 녹음했다. BnF 카탈로그는 이 날짜를 기록하며, 1935년 Marguerite Long의 Paysandu 녹음도 별도로 남긴다. Fremeaux 자료는 Jacques Février의 1957년 녹음과 1929년 Le Trigentuor Lyonnais·Charles Strony의 관현악 발췌 녹음을 더해, 피아노판과 관현악판이 초기부터 서로 다른 매체로 유통되었음을 보여 준다.

현대 피아노판의 한 기록으로는 Alexandre Tharaud의 1995년 Naxos 녹음이 있으며, 12곡을 한 모음으로 수록한다. DSE와 Naxos 자료에는 Milhaud가 지휘한 1957년 Concert Arts Orchestra의 관현악판, Capella Cracoviensis와 Karl-Anton Rickenbacher의 관현악 전곡, Leonard Bernstein·ONF와 Gennady Rozhdestvensky의 발췌 녹음도 함께 열거된다. 각 음반은 피아노 원곡, 관현악 전사, 발췌곡 가운데 서로
다른 범위를 보여 주며, 음반별 판본과 수록 범위의 차이도 함께 드러낸다.

2012년 BBC Music Magazine의 Nicholas Williams는 Tharaud 음반을 비평하면서 이 모음곡이 지닌
이국적으로 들리는 면을 언급했다. 이는 한 비평가의 청취 반응이며, Milhaud가 특정 민요를 직접 인용했다는 사실이나 작품의 장르를 대신하지 않는다. 반대로 1920년대 초연과 1930년대 무대 사용, Milhaud 자신의 초기 녹음은 작품이 피아노 소품집을 넘어 관현악과 발레의 문맥으로 옮겨 간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주요 자료

IRCAM, 피아노판 작품 항목: 1920–1921년, Op. 67, 피아노판, 1920년 11월 Paris 초연 기록과 12
곡, 소요 시간.

IRCAM, 관현악판 작품 항목: Op. 67b, 관현악 편성, 약 22분, 1921년 Loïe Fuller 공연과
Golschmann.

IRCAM, Darius Milhaud 워크코스: 브라질 체류, 다성성, Saudades do Brasil의 창작 선율에 관한
설명.

Durand–Salabert–Eschig 카탈로그: Op. 67b의 출판 ·편성 ·공연 기록과 음반 목록.

Fremeaux, Darius Milhaud booklet: 브라질 체류와 춤 문화, 12곡, 초기 녹음과 관현악 발췌.

UNESP, Faces da História 논문: maxixe와 1920년대 Paris의 브라질 리듬 수용 맥락.

UNESP 학위논문: 1917–1918년 브라질 체류와 귀환 후 작곡 연대.

BnF, 역사 녹음 카탈로그: Milhaud, Marguerite Long의 초기 녹음 날짜와 곡명.

Rambert Archive, 공연 데이터베이스 : 1930년 Ashton 안무 발췌 무대의 범위와 연주 조건.

PTNA Piano Music Encyclopedia: 12개 표제, 2/4박자, tempo와 헌정 표기. Naxos, 8.553443: Alexandre Tharaud의 1995년 피아노 녹음과 트랙 정보. Naxos, 9.80448: Milhaud 지휘 관현악판과 수록 범위.
Classical Music, Tharaud 음반 비평: 2012년 Nicholas Williams의 수용 ·청취 평가.